



특집을 기획하며

2017년 알파고와 이세돌 그리고 이어진 커제와의 바둑승부결과에 많은 사람이 놀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2018년 1월에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 17명은 바둑을 독학한 알파고 제로가 학습시작 불과 74시간 만에 인간의 바둑기보로 공부한 알파고와의 대전에서 100전 89승 11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인간보다 머리 좋은 존재의 출연은 우리를 경악시켰다. 인공지능이 자의식이 생긴다면, 인류를 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서서히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인다. 다만 아직 먼 이야기 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정작 현재 시점에서 두려워해야 할 사실은 그 인공지능이 거대기업인 구글의 통제에 있다는 점이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나 주차장의 번호인식기능과 같은 기술은 사용자입장에서 편리하게 느껴지지만, 기존에 그 분야 종사자에게 대량실직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재 재벌이 골목상권까지 넘보는 신자유주의체제의 약탈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대기업이 이런 신기술까지 독점한다면, 우리 각자는 긴 칼 휘두르는 걸리버 앞의 소인국 사람 신세가 될 판이다. 진정 개미는 기관투자자와 맞짱을 뜰 수 없단 말인가? 나 같은 소시민은 이런 대기업과 무엇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의외로 이런 고민을 풀어줄 단서는 'FC 바르셀로나'에서 찾을 수 있다. '엘 클라시코(El Clasico)'란 말은 들어 보셨을 터, 스페인어로 '진정한 승부'라는 뜻의 이 말은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라이벌전을 일컫는다.

역사성과 지역감정부터 팀의 운영방식까지 이 두 팀은 차이는 극명하다. 원래부터 유학과 귀족이 모여 만든 팀인 마드리드는 1920년 국왕 알폰소 13세가 '왕립'이라는 뜻의 '레알(Real)' 칭호를 내리고, 그들을 힘써 밀어준 프랑코총독의 독재시기를 거치며 '어용(御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나 FC바르셀로나는 지역의 일반 시민이 창립한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구단, 즉 시민의 구단이다. 현재 FC바르셀로나는 17만3071명의 출자자와 1343개 팬클럽이 주인인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클럽의 구단주인 회장 및 이사회 구성도 대기업 총수가 아닌 회원들이 총회를 통해 선출 및 운영하는데, 모든 회원은 FC바르셀로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한태룡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책임연구위원
스포츠 사회학 전공
스포츠와 인간관계에 관심
05065@kspo.or.kr

한쪽이 ‘만들어진’ 존재라면, 다른 한쪽은 ‘만들어낸’ 존재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만들어낸’ 식으로 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노력은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구성된 간 협력, 자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협력, 연대, 사회적 가치 등의 용어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따뜻하다.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제활동이라는 냉엄하고 무자비한 무대에서 이런 사업방식은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방식으로 기업과 상대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라고 걱정하셨다면 잠시 판단을 유보하시라. 정부통계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모든 분야의 사회적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6년 현재 총 91,000명이 고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츠 내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게 지면을 할애하였다. 세 분의 필자는 아직 다른 분야에서도 생소한 사회적 기업을 스포츠분야에서 실천하시고 계신 분이다. 김상훈 박사께서는 이 척박한 분야의 학문적 연구에 힘써주시는 분이며, 김광원, 전영창 선생님은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다. 길을 만들면서 걸어가고 계신 세 분 모두의 어려움을 짐작해야 하겠으나, 각자의 글에는 자부심과 보람이 묻어난다. 역시 인간은 무언가 만들어낼 때 가장 즐거운 듯 보인다. 그것도 여러 사람과 함께라면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필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과 더불어 이렇게 간절하게 현장에서의 건투를 빌어본 특집도 처음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다. 그대들의 오늘은 내일의 길이 되리니, 부디 바라옵건대 건승하시라.

※이 글에 실린 내용은 한국스포츠개발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